



전북서부문화유산돌봄센터, 노후마을 재능기부

전북서부문화유산돌봄센터(센터장 남해경)는 지난 18일 고창군 부안면 인촌마을회관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창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이뤄졌으며, 문화유산인 인촌생가가 위치한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22일 전복대에 따르면 이날 센터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비가 오는 곳엔 날씨 속에서도 노후화된 마을회관의 벽지를 새로 도배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등 다양한 봉사 활동에 펼쳤다.

특히 어르신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목재 의자를 직접 제작·설치해 호응을 얻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한식조리학과, 오토기어드와 협약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는 지난 21일 (주)오토기어드(대표 신희찬)와 조리로봇을 활용한 레시피 확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푸드테크 산업에 대응하고, 미래 조리환경에 적합한 스마트 조리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에 양 기관은 △조리로봇 기반 레시피 개발, △로봇 적용 조리공정의 표준화, △조리 교육 현장에 로봇 기술 도입, △산학 공동 연구 및 실증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주)오토기어드는 다양한 식품 조리가 가능한 모듈형 조리 로봇과 소프트웨어 제어 기술을 보유한 국내 대표 푸드테크 스타트업이다. /장은성 기자



남원여성의용소방대, 소방관에 응원의 손길

남원여성의용소방대(대장 허경이)가 무더위 속에서 헌신하는 소방관들을 위해 따뜻한 응원의 손길을 전했다.

이용소방대는 지난 21일,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를 방문해 차킨과 아이스크림을 전달하며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사를 전했으며, 준비된 음식은 폭염 속 현장 활동으로 지친 소방대원들에게 작은 위로와 휴식시간이 되었다.

남원소방서 소방대원들은 지난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 기간 지리산 뱀사골 계곡 고립자 구조를 포함 총 37건 소방활동을 펼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진장 농어촌공, 여름철 저수지 사고 예방 캠페인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여름철을 맞아 관내 저수지 62개소에 대해 안전 경고판을 정비하고, 행락객 및 낚시객 주의를 위한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저수지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사는 총 202개소의 농업기반시설(저수지, 취입보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와 수위 상승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무단 출입 금지, 수영·낚시 금지 안내, 경고문구 시각화 등을 통해 이용객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저수지나 보에서의 익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번 캠페인은 '불가 접근은 생명 위협', '이곳은 농업시설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시각적 경각심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낚시객이나 가족 단위 행락객이 무심코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치에 경고판을 재정비하고, 낚시 금지·출입금지 안내 현수막 60여 개소 이상을 집중 설치했다.

또한, 무진장지사는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한 농업기반 시설 이용 증가에 대비해 주기적인 안전 순찰과 응급 대응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극한 호우' 대비 수리시설 복구 총력

농어촌공사, 사전 대응체계 가동... 추가 재해 예방 등 집중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극한 호우로 발생한 수리시설 피해에 대해 신속한 복구 작업에 착수했으며,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폭우에 대비해 사전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피해 최소화에 주력했다. 김인중 사장은 '호우 사전 준비회의'에서 "무엇보다 인명 피해를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고, 공사는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이어 공사는 저수지 수위를 낮추기 위한 사전 방류를 실시해 12억톤(소양강댐 저수량의 41%)의 저류효과를 통해 하류부 침수피해를 저감하는 한편, 16일부터 20일까지 누적 7,179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824개 배수장을 가동해 농경지 등에 대한 침수 피해를 줄이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이례적인 폭우로 인해 일부 배수장 등이 불에 잠기는 등 수리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김인중 사장은 지난 20일 '호우 피해 현황 및 복구계획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향후 태풍 등 추가 재해에 대비해 피해 복구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 수리시설 기능을 신속히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공사는 수리시설 피해에 대한 응급 복구와 조사를 진행 중이며,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폭우에 공사 전 임직원이 나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라며, "반복되는 극한 호우, 태풍에 대비해 수리시설을 빠르게 복구하고, 농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호우 피해 입은 남원 농가 찾아 피해복구 나서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지난 주, 폭우로 산사태 피해를 입은 남원시 관내 농가를 찾아 피해 복구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전북농협 임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무더운 날씨 속에서 창고 정리 등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현장에 나서게 됐다"며 "앞으로도 피해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믿음직한 동반자 전북농협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이번 주 중으로 특히 피해를 많이 입은 전남과 광주에 피해 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추가적인 일손돕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농협은 특히 고령 농가나 인력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 활동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은 피해 농가를 파악하고 폭염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농협 순창군지부, 호우 피해 이재민 긴급 구호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지부장 신충철)는 최근 덕산마을을 방문해, 지난 17일 집중호우에 임시대피소로 대피했던 풍산면 이재민들에게 '재난 구호물품 50상자(400만원 상당)'를 긴급 지원했다.

농협 전북본부는 집중호우 등 재난구호를 위해 쌀, 국수, 즉석 미역국, 담요, 화장지, 차약, 칫솔 등 생필품으로 구성된 구호물품을 사전 준비했고, 순창군지부는 이재민 발생에 따라 순창농협의 차량 등 협조를 얻어 신속하게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순창=이양희 기자

김제 검산동, 노인일자리 사업장 폭염대응 점검

김제시 검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1일, 폭염에 대비해 관내 노인 일자리 사업장(검산동 소공원, 검산동 어린이 공원)을 방문해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인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은 대부분 실외 활동이 많은 환경미화, 공공시설 정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폭염에 특히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작업시간 조정, 충분한 수분 섭취, 휴식 시간 확보 등을 강조하며 무더위 시간대에는 실외 작업을 지양하도록 당부했다. /김제=곽도태 기자



남원 덕과면, 농촌 취약계층 주환경개선 추진

남원시 덕과면에서는 청년이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하는 '2025 도내 청년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활동이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하고 쓰임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 청년 자원봉사자 15명이 직접 참여, 덕과면과 협조해 화장실 내부 상태가 열악하거나 바닥 타일이 미끄러워 안전사고 위험이 큰 가구, 지붕이 뒤틀려 빗물이 새는 가구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구 2곳을 선정 진행하였다.

한 자원봉사자는 "직접 손으로 무언가를 고치며 누군가의 삶에 실제 변화를 만든다는 것이 뜻깊은 과정이었다"라고 전했으며, 쓰임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청년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만 덕과면장은 "청년들이 '쓰임'이라는 이름처럼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손길로서 따뜻한 실천을 이어가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주총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86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645-9935	010-2333-4791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010-2333-4791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010-6645-9935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장수교육지원청,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연수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지난 21~22일 일반직 공무원 99여명을 대상으로 공정한 업무지시 문화 확립 및 지속가능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직급별 맞춤형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 개선과 실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직급별 특성과 역할에 맞춘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였다. 특히 ESG 가치를 접목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 내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

추영곤 교육장은 "공정한 업무지시 문화는 건강한 조직의 기초"라며, "이번 연수가 실질적인 조직문화 개선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긍정적이고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가족센터, 예비·신혼부부 대상 부부교육

남원시 가족센터는 2025년 7월 3일, 10일, 17일 등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남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예비·신혼부부 5쌍을 대상으로 부부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예비·신혼부부들이 결혼생활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부부의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교육은 총 3회차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소통 교육, 재무·경제 교육, 레터링케이크(희망메시지) 만들기 활동을 포함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신혼부부들은 결혼 초기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방법과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역할 분담 및 가계경제 계획 수립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소방서, 화재예방순찰 노선 편성 심의회

무주소방서(서장 김장수)는 22일 화재예방순찰 노선 편성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순찰 노선 편성 심의회는 전동시장, 중점관리대상 등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화재예방순찰을 추진하고자 연 것.

이번 심의회를 통해 무주소방서에서는 각 119안전센터의 순찰 노선을 재확인하고 추가 대상을 선정하면서 심의회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화재 시 신속한 대응과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대비했다.

심의 결과 △무주119안전센터에선 무주종합복지관, 무주예체문화관 등 12개소(순찰 거리 15km) △구전동119안전센터에서는 무주덕유산리조트, 덕유산관리사무소 등 8개소(순찰 거리 16km) △무주119안전센터 안성119지역대에서는 덕유산정터, 안성농공단지 등 8개소(순찰 거리 10km) △구전동119안전센터 설천119지역대는 삼도봉정터 등 3개소(순찰 거리 19km) 총 4개 노선, 순찰 대상 31개소, 순찰 거리 약 60km 구간이 순찰 노선으로 결정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부안군보건소, 고흥사랑기부금 상호기탁

진안군과 부안군 보건소 직원들이 고흥사랑기부제를 통한 상호기탁 기탁식을 잇따라 개최하며 지역 간 상생과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6월 30일에는 진안군 보건소 직원들이 부안군을 직접 방문해 200만원을 기탁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7월 21일에는 부안군 박찬병 보건소장을 비롯한 부안군청 관계자들이 진안을 방문해 200만원을 기탁하며 상호기부금을 마무리했다.

이번 상호기부금은 두 보건소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지를 바탕으로 추진된 것으로, 고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역 간 연대와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진안=우태만 기자